고려대 이철호 교수 정년퇴임 감사 모임 (축사)

대선제분 박관희 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소정(溯丁) 이철호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성대한 송별연에 초청해 주신, <호공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철호 교수님의 호가 '소정'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초청장을 받고 나서 제 나름대로 뜻을 새겨 보니까, 거슬러 올라갈 '소'자에 고무래 '정'자, 고무래 '정'은 장정 '정'이라고도 하죠, 물이 흐르는 근원을 찾아 나선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더군요. 손에는 곡식을 긁어모을 때 쓰는 고무래를 들고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이철호 교수님은 '소정'이라는 이름처럼 살아오신 분입니다. 물이 흐르듯 조용조용하면서도 쉼 없이 꾸준하게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학자인 동시에, 항상 남을 좋게 얘기하고, 남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나지 않는 성품을 소유한 교육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의기가 투합하여 일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식품 익스트루전 연구회를 만들어 9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면서, 또 한국 전통식품 산업화 연구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이교수님 어깨 너머로 듣고 보고 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탁주 제조기술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1989년이었습니다. 그 때는 누구도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extrusion cooking으로 탁주의 원료를 전처리했을 경우 발효시간의 단축과 생산수율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였는데, 그 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탁주제조 기술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호 교수님과 30여년이란 짧지 않은 인연을 맺어오면서 저는 이교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입은 신세가 많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면 이교수님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에 기복이 있는지라 제가 바쁠 때 연락을 드리지 못해도 제가 필요에 의해서 찾으면 이교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구실의 1년 성과와 내년도 계획, 이교수님의 가족 안부까지 소상하게 전하는 연하 카드를 한해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딴에는 이교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꾸준하게 응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수님의 정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교수님께서 보일 듯 말 듯, 제 주위를 감싸주신 30년간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이런 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아무 다툼 없이,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어쩌다 필요에 의해서 연락했을 때 즐겁게 응해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간의 이교수님 인자하신 성품으로 본다면 남을 돕는다기보다,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기시고, 저라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 듯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저런 보통관계에 불과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저는 앞으로도 이교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러저런 보통관계를 평생 가져갈 것입니다.

이철호 교수님은 최근 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저로서는 이교수님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조력할까 고심중입니다. 내 힘이 미약하여 큰 도움이 못될지라도 이교수님의 학문적 양심을 추종하는 저의 일편단심이랄까, 이교수님을 따라가는 그림자 밟기는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9일